

## 「기사의 이야기」: 형식(Forms), 부조화(Incongruities) 및 초서의 의도\*

이동춘 (대구대학교)

초서는 『새들의 의회』(*The Parliament of Fowls*)와 「멜리비의 서시」(*The Prologue to Melibee*)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retelling the tales*)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내 비치고 있다. 여기에서 초서는 자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retelling)하여 독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초서는 자신 스스로를 “과거 이야기”라는 말을 새롭게 경작하는 사람(cultivator)으로 여겼으며, 당시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원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듯싶다.

---

\* 본 논문은 2007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옛 들판에서 매년 새로운 곡식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실제로, 오래된 과거 책들로부터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 또한 나오는 것이다.<sup>1)</sup>

For out of olde seldes, as men suety,  
 Cometh ac this news corn from yea to yore,  
 And out of olde bakes, in good faith,  
 Cometh ac this news science that men lire.<sup>2)</sup>

(*The Parliament of Fowls*, 22-5)

위의 인용된 초서의 생각에 대한 코프(Leonard Koff)의 해석이 의미 있어 보인다. 그의 지적대로 초서에게 오래된 책(들판)이란 새로운 어떤 것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알곡이 ‘수확’되어지는 곳이다(38). 코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초서의 생각이 『새들의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어떠한 것을 배운다는[얻는다는] 것은 거의 오랜 날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And therupon, a certeyn thing to lerne,/The longe day ful faste I redde and yerne--ll 20-1]. 초서는 새로운 단어 혹은 의미(알곡)란 책(들판)과 화자/독자(수확자)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초서의 내러티브에서 눈에 띄는 공통된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초서의 내러티브가 지닌 의미(혹은 알곡[*corn*])란 단순히 이야기 전달자인 화자의 말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지적인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 수확되어지는 것이다.

초서의 일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시골 사제의 이야기」(*The Parson's Tale*)나 「철회」(*Retraction*) 등을 제외한 『캔터베리 이야기』안의 어느 내러티브에서

1) 본 논문에 인용된 「기사의 이야기」의 우리말 번역은 이동일, 이동춘, 『캔터베리 이야기 I』,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을 따르고 있다.

2) *The Knight's Tale*를 비롯한 본문에 인용된 초서 작품의 원문은 *The Riverside Chaucer*, gen,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을 따르고 있다.

도 하나의 진리, 이념 혹은 가치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신 초서는 이야기 속의 사건이나 인물을 애매모호하게 묘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각자가 의미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초서의 이야기는 화자가 전달하는 것과 독자가 이해하는 것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하워드(Donald Howard)는 이를 두고 초서의 내러티브는 “자기 발견의 소설(이야기)들”(fictions of self-discovery)라고 까지 말한다(102).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는 허공에 맴도는 수많은 ‘소식들’(tidings)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 ‘소식들’ 안에 내재된 의미나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몫은 독자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초서의 「기사의 이야기」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보카치오의 『테세이다』(*Teseida*)라는 발을 초서가 나름대로 새롭게 경작한 것이 「기사의 이야기」이다. 이태리의 여러 많은 작품들 가운데 『테세이다』만큼 초서가 즐겨 사용한 원전도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할 「기사의 이야기」에서는 물론이고 『아넬이다와 알시테』(*Anelida & Arcite*), 『새들의 의회』,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다』(*Troilus & Criseyde*), 『착한 여인전(傳)』(*The Legend of Good Women*), 「시골유지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명예의 전당』(*The House of Fame*)에서 초서는 『테세이다』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시 읽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만큼 초서가 보카치오의 작품들 가운데 이 작품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기사의 이야기」에서 초서는 『테세이다』의 전체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플롯을 그대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다시 읽기’를 통하여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자에게 원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움’을 여러 측면에서 초서는 부여하고 있다.

원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움’이란 「기사의 이야기」의 형식, 내용 그리고 스타일에서 비롯되며 이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의미 혹은 관점을 제공해준다. 「기사의 이야기」에서 만큼 철저하게 형식을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원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움을 독자에게 부여하는 작품도 드물다. 특히, 순수 서사시도 아

니며 그렇다고 로맨스도 아닌 『테세이다』의 형식을 초서는 나름의 목적을 위해 균형과 조화를 갖춘 새로운 형식의 기사도적(chivalric)이며 궁정풍(courtly)의 로맨스로 다시 쓰고 있다(Pratt 603). 그러나 완벽한 형식과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내용과 스타일을 초서는 작품 여기저기에 주입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가 화자의 말에 단순히 내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장과 관점은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관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초서는 작품에서 이 같은 부조화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러티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독자의 지적인 노력과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입증한다.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에서 볼 수 없는 「기사의 이야기」만의 새로운 요소, 즉 형식과 내용 그리고 스타일의 부조화를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초서의 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전체 속에서 초서가 전달하려는 「기사의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추론해보고자 한다.

## I. 형식의 절제와 균형

『테세이다』의 다시 읽기를 통하여 초서가 당시 독자를 위해 「기사의 이야기」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원전과의 차이들은 매우 다양하다(Pratt 598-621; Wilson 131-146).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플롯 구조에 있다는 점에 비평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사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플롯 구조에 대한 비평가들 사이의 공통적인 합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킨(Patricia Kean)의 경우, 작품의 플롯으로 화자인 기사가 설정해놓은 네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부분에 장면(배경) 그리고 이야기의 기본적 패턴과 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연인들과 테세우스 사이의 대립양상이 발전된다. 그리고 연인들과 관련된 신들의 대립 및 발전이 세 번째 부분의 주된

내용이며, 네 번째 부분의 초점은 작품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grete effect’에 맞추어져 있다고 킨은 설명하고 있다(16-17). 킨과 마찬가지로 윌슨(H. S. Wilson) 또한 작품을 네 부분으로 구분 짓고는 있으나,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다섯 단계, 즉 도입(*protasis*), 발전(*epitasis*), 위기(*catastrophe*), 격변(*peripeteia*), 그리고 결론(*anagnorisis*)에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다섯 단계로 작품의 플롯 구조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피펠드(Merle Fifield)의 구조적인 분석 또한 윌슨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피펠드는 작품 속의 여러 다양한 시점에서 화자인 기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95-106): 1354행(첫 번째 부분의 끝), 1881행-83행(세 번째 부분의 시작), 2479행(세 번째 부분의 끝), 그리고 2965행-66행(네 번째 부분의 끝). 로우(Elizabeth Ashman Rowe) 또한 「기사의 이야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피펠드와 다른 점은 이야기의 자연스런 흐름을 위하여 화자가 혼자 내뱉는 말보다는 사건의 기본적인 패턴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필자의 생각 또한 로우의 이러한 분석이 다른 분석들에 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 본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겠지만, 작품의 화자인 기사와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관내지 이상 그리고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전체 속에서 「기사의 이야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로우의 분석이 원전을 다시 읽음으로서 초서가 기획했던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로우의 분석은 「기사의 이야기」의 문학적 장르를 로맨스로 보는 대다수의 많은 비평가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통일성이 없을뿐더러 주제와 디자인 등이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힘과 등장인물의 성격묘사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프랫(Robert A. Pratt)은 『테세이다』의 장르를 의사(擬似) 서사시(pseudo-epic)라고 규정짓는다(603). 초서의 「기사의 이야기」에 서사시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능한 원전이 지니고 있는 서사적인 구조와 스타일을 벗어나 플롯의 통일성과 균형이 강조되는 로맨스 기본적 구조로 초서는 「기사의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이야기」는 로맨스의 중요한 내용인 사랑, 기사도, 시련 그리고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시작과 끝이

결혼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의 중간 중간에 갈등과 대립이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에 이르러 행복한(?) 결론에 이른다. 「기사의 이야기」에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질서의 회복이라는 구조가 작품의 기본적 골격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로맨스에 자주 쓰이는 판에 박힌 용어나 스타일 또한 「기사의 이야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기사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갈등-혼란-질서회복의 기본적인 틀은 초서가 다시 읽기의 대상으로 즐겨 삼았던 영국의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구조와도 매우 유사하다. 브레몽(Brémond)에 따르면, 전통적인 내러티브란 ‘결손’(deficiency) 혹은 ‘부족’(lack)의 상태에서 시작하거나 ‘만족’(satisfaction)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최소한 한 바퀴를 돌아 ‘만족’의 상태로 끝나게 된다.<sup>3)</sup>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악행’(villainy) 혹은 ‘부족’(lack)에서 시작하여 발전 및 갈등을 비롯한 몇 개의 기능적인 사건들(functional events)을 거쳐 ‘결혼’ 혹은 ‘불행의 해소’(liquidation of misfortune)로 끝을 맺는다. 용어에서 차이만이 존재할 뿐,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지닌 이러한 보편적인 구조는 로맨스에도 적용되며, 앞서 언급한 「기사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플롯 구조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기법의 측면에서 영국의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지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반복’(repetition)과 ‘변이’(variation)를 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기사의 이야기」의 기본적 플롯 구조를 논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한마디로 「기사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플롯 구조는 ‘상실과 회복’(loss and restoration)이라는 전형적인 주제를 몇 개의 유사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반복’하고 ‘변이’(repetition and variation)시킴으로서 독자들에게 화자의 목소리를 강조

3) 헨드릭(William Hendrick)의 논문, “The structural Study of Narration: Sample Analyses,” *Poetics* 3 (1972): 100-105와 캠벨(Joseph Campbell)의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2nd ed. Bollingen Series 17 (Princeton: Princeton UP, 1968), 28을 참조할 것. 캠벨에 따르면 모든 로맨스의 첫 부분은 비극 혹은 소위 ‘아래로 향함’(down-going)으로 특징 지워지며, 후반부는 ‘시작점’(the point of initiation)에서부터의 귀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부분과는 반대로 희극 혹은 ‘위로 향함’(up-going)으로 특징 지워진다.

하여 전달하고 있다.

「기사의 이야기」의 경우, 로우의 분석대로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기본적인 플롯을 살펴보면 세 개의 유사한 플롯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갈등-대립(간청)-질서의 회복이라는 기본적인 플롯이다.

The Chain of Events (I)

The Battle of the Seven Against Thebes

<테베에 대항한 일곱 용사의 전투>

The Theban Widows Plead for Mercy (950)

<테베 미망인들의 간청>

RESTORATION OF ORDER (1023)

<테세우스에 의한 질서 회복>

Palamon and Arcite Fight (1654)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

Theseus' Women Plead for Mercy (1757)

<테세우스 여인들의 간청>

RESTORATION OF ORDER (1826)

<테세우스에 의한 질서 회복>

Palamon and Arcite Fight (2602)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

Arcite Pleads for Mercy (2808)

<알시테의 간청>

RESTORATION OF ORDER (2974)

<테세우스에 의한 질서 회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과 갈등, 간청 혹은 중재, 그리고 질서회복이라는 기본적인 플롯 구조에 약간의 변이는 있으나 작품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기본적 플롯은 반복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조정자 내지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테세우스라는 사실이다. 그의 역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라이(Northrop Frye)의 표현을 빌자면, 단순하지만 이러한 플롯구조를 “소원성취의 구조”(a form of wish-fulfilling) 혹은 “갈등 해결의 구조”(a structure of problem solving)라 부르는데(187),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이며 순환적으로 『기사의 이야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질서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하는 인물이 테세우스라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전에서 볼 수 없는 『기사의 이야기』만의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초서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논하기에 앞서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일련의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갈등 해결의 구조와 구조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플롯 구조가 도출되어진다. 이러한 구조 또한 한 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The Chain of Events (II)

Palamon and Arcite Are Found Together (1011)

<팔라몬과 알시테가 함께 발견됨>

Palamon and Arcite Fight (1128)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

Palamon and Arcite Separate (1206)

<팔라몬과 알시테의 헤어짐>

Palamon and Arcite are Reunited (1574)

<팔라몬과 알시테의 재결합>

Palamon and Arcite Fight (1654)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

Palamon and Arcite Separate (1879)

<팔라몬과 알시테의 헤어짐>

Palamon And Arcite Are Reunited (2096)

<팔라몬과 알시테의 재결합>

Palamon and Arcite Fight (2602)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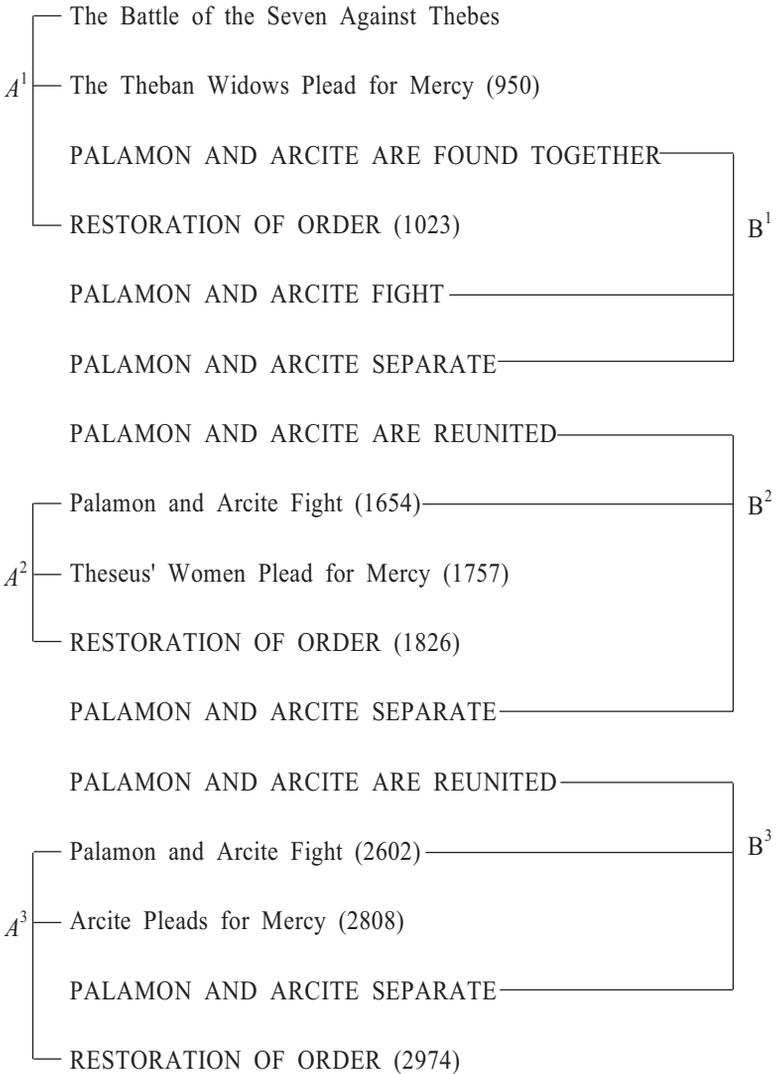
Palamon and Arcite Separate (2809)

<팔라몬과 알시테의 헤어짐>

위의 반복적인 일련의 구조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팔라몬과 알시테의 싸움’과 ‘팔라몬과 알시테의 헤어짐’ 사이에 항상 테세우스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팔라몬과 알시테가 상호 대립할 때마다 이를 중재하여 평화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인물이 바로 테세우스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팔라몬과 알시테가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혼란과 갈등에 테세우스는 안정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위의 구조 또한 도표 I (The Chain of Events)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순환적이며 안정과 질서를 회구하는 화자의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표 I의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도표 II는 전자가 지향하는 이른바 갈등해결의 국면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도표 I, II를 통합, 정리해보면 내러티브의 구조와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의도가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매우 단순해 보이나 갈등(혼란)과 테세우스의 역할(중재) 그리고 질서(안정)회복의 기본적 구조가 다음처럼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양상을 띤다.

The Chain of Events (III)



위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도표 I의 기본구조와 도표 II의 기본구조가 단순히 일렬로 반복 교차되기보다는 교차와 중복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보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자면, 도표 II의 첫 번째 구조에 앞서 도표 I의 첫 번째 구조가 시작되며, 도표 I의 두 번째 구조는 완전히 도표 II의 두 번째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표 I의 세 번째의 경우, 첫 번째 구조와는 반대로 도표 II의 세 번째 구조 다음에 뒤따른다.

이와 유사하게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에 있어서 또한 반복과 교차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아테네와 테베가 후반부에서는 아테네와 올림포스가 반복되며 서로 교차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베시(David Vesey)가 지적하고 있듯이, 『테베이드』(Thebaid)에서 테베와 아르고스(Argos)가 반복,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320). 「기사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의 배경은 아테네의 밖이며 그곳에서 테베의 아낙네들이 테세우스의 행진을 멈추게 한다. 두 번째 장면은 테베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팔라몬과 알시테가 발견된다. 세 번째는 아테네의 감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반면, 네 번째의 배경은 테베로서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알시테에게 머큐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장면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세 번째 배경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시점은 바로 알시테가 마르스(Mars)에게 기도를 올린 이후부터로 그 배경이 신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대표되는 올림포스로 바뀐다. 그 다음 배경은 아테네의 경기장이나, 마상시합이 끝난 후 올림포스를 배경으로 비너스가 울고 새턴이 비너스를 달래준다. 아테네와 올림포스의 반복과 교차는 초서의 원전인 『테세이다』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측하건 데 초서의 의도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기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테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테네 중에서도 슈바이처(Edward Schweitzer)의 주장대로 작품이 시작하는 바로 그 숲에서 끝나는 듯하다(25). 공간적 배경의 이와 같은 반복과 교차는 단순한 배경의 변화이기보다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테세우스가 통치하는 아테네를 안정과 질서의 영역으로 설정한 반면, 테베와 올림포스를 혼란과 무질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상호 대립시키고 있다.

몇 개의 유사한 갈등과 해결 구조를 지닌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공간적 배경

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화자는 독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자신의 메시지 혹은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원전에서 볼 수 없는 「기사의 이야기」만의 구조적 형태와 기법, 즉 순환적 구조를 비롯한 유사한 주제의 반복과 교차를 통하여 화자가 독자로부터 이끌어 내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단순하면서 독자에게 익숙한 구조와 전개 기법을 통하여 「기사의 이야기」의 화자는 독자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의 화자는 독자에게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사실을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비슷한 주제를 가진 플롯, 혹은 플롯의 교차 및 반복을 통하여 이야기의 결말에 대하여 독자 스스로 예측 혹은 기대할 수 있도록 화자는 이끈다. 심지어 이러한 기법은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독자를 이른바 ‘극적인 환상’(dramatic illusion)에 빠져들도록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최면효과’(effect of incantation)를 통하여 「기사의 이야기」를 대하는 독자는 이야기의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과 의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sup>4)</sup>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향하는 안정과 질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하여 「기사의 이야기」의 화자는 앞서 언급한 구조와 배경이외에 등장인물, 신, 그리고 색채 등에 철저한 형식과 구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터너(Frederick Turner)가 매우 자세하게 논한바 있듯이, 「기사의 이야기」에는 이원론적 관계뿐만 아니라 삼각(triadic) 그리고 사각(quadratic)의 형식과 구도 속에서 앞서 언급한 대상들이 대립 혹은 갈등을 빚고 있다(282-85). 특히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삼각의 관계는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와 유사하며, 중세 봉건사회의 근간인 복종과 지배의 관계 혹은 위계질서의 의미를 띤다. 구조적인 분석에서 보았듯이, 안정과 질서를 유지 혹은 회복시키는 테세우스와 이를 방해하는 팔라몬과 알시테를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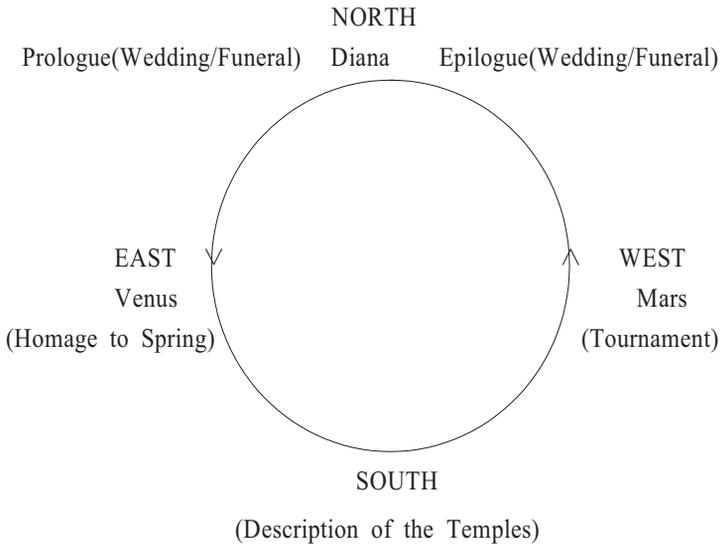
4)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in *Myth: A Symposium*, ed. Thomas A Sebeok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P, 1965)와 더불어 Susan Wittig, *Stylistic and Narrative Structures in the Middle English Romances* (Austin and London: U of Texas Press, 1978), 11-16을 참조할 것.

각관계로 설정해볼 때 터너의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의 경우,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마르스와 비너스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주피터의 관계, 아울러 이들 신들을 대표하는 삼색의 깃발(붉은 색, 흰색 그리고 황금색) 또한 인간세계가 보여주는 삼각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등장인물을 사각관계로 설정해볼 때,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에밀리와 테세우스(2576-769)와 그 상대편에는 갈등과 대립을 상징하는 팔라몬과 알시테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신의 세계와 색채의 관계에서도 터너는 사각관계를 도출시키는데, 이들 사각관계는 계절, 만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 그리고 인간의 체액(humours)의 수(數)와 일치한다고 터너는 주장한다(285).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거나 터너의 이와 같은 주장은 등장인물, 신, 그리고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까지 화자가 구조와 배경 못지않게 형식과 질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화자인 기사는 테세우스의 신념과 행동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측면에 질체와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의도가 다소 인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는 기사도를 통해서 사회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어느 정도의 안정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테세우스의 기사도적 신념과 일맥상통한다.

화자의 이러한 의도와 테세우스의 신념에 대한 화자의 확신은 「기사의 이야기」의 중심부분이며 작품 전체의 축도(縮圖)라 할 수 있는 제 3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기사의 이야기」제 3부의 중심내용인 원형 경기장과 각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신들의 묘사는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구조이다. 먼저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기사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결혼이며, 동시에 장례식이기도 하다. 결혼과 장례식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의식으로서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로맨스 작품의 기본적인 축을 제공한다. 특히, 알시테의 장례식은 원혹은 주전원(epicycle)로서 앞서 언급한 등장인물, 색채, 그리고 신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화합시키며 위계질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알시테의 시신은 황금색 천으로 둘러싸이며, 머리에는 녹색의 월계관이, 그의 손에는 흰색의 장갑이 끼워지며, 조문객들의 옷은 온통 검정 색으로 그의 부장품인 무기를 운반하는 말은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육체를 태우는 붉은

불꽃에 황금 그릇에 담겨져 있는 꿀, 우유, 피 그리고 술이 부어진다.

제 3부의 구조 또한 알시테의 장례식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제 3부의 원형경기장에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 상하 위계질서와 형식이 축약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원형적인 구조를 대변해준다고 로우는 지적한다(177-78):



원형경기장의 네 방향 가운데 동쪽이 작품의 제 2부에 해당한다면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쪽은 제 4부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 2부에서 비너스가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 에밀리를 포함하여 알시테와 팔라몬이 봄의 여신인 비너스에게 탄원을 하는 모습이나 비너스에 대한 화자의 언급이 제 2부에서 자주 눈에 띈다(1052-55; 1104-11; 1506-09; 1528-29). 반대로 제 4부에는 알시테와 팔라몬의 대결 장면으로 전투를 주관하는 마르스와 죽음을 암시하는 서쪽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아울러 작품의 시작과 끝에 다이애나와 북쪽을 설정해놓은 이유에 대해

여 로우는 작품의 시작부분에는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으나 아마존 여전사들과 에밀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순결을 유지하며 처녀로서 삶을 지키고 싶었던 이들 여성들의 바람을 다이애나가 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로우는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맨스의 보편적인 구조인 원형적 모델은 작품에 나타나는 이원론적, 삼각 혹은 사각 구조를 모두 통합 혹은 수용하는 형태임에 틀림없다. 작품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이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원형의 상태로 화자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구조적 분석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원형적 모델의 중심에는 항상 질서를 회복과 안정을 갈구하는 테세우스가 위치하고 있다. 터너의 주장대로, 「기사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원형적인 조화와 안정에 맞추어져 있을뿐더러 작품의 이러한 모델은 초서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중세 시대 우주 천체의 모델을 기초로 이루어졌다(286). 이러한 사실은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입장이 무엇인가 보다 더 명확하게 해준다. 당시 중세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천체의 구조는 여러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품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지닌 혹성들, 예를 들어 비너스, 마르스, 주피터, 새턴 등이 포진되어 있는 첫 번째 구(sphere)가 있으며, 새턴의 외부에는 항성(fixed stars)들이 있고 그 다음 구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로 *Primum Mobile*, 즉 테세우스가 팔라몬과 에밀리의 결혼식에서 언급하는 ‘원동력이신 분’(First Mover)이다(2987-3038). ‘원동력이신 분’의 내부에 포진하고 있는 혹성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운행을 할지라도 ‘원동력이신 분’만은 ‘영원하고 안정적’으로 처음과 같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테세우스처럼 당시 사람들은 믿어왔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기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신들의 대립은 자리를 바꿔가며 운행하는 혹성들 사이의 대립에 비유되는 반면, 규범과 질서 그리고 영원성을 의미하는 ‘영원하신 분’은 작품의 테세우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테세우스에 대한 이야기의 화자인 기사의 입장이며, 아울러 기사도에 대한 화자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내용과 형식에 있어 부조화(incongruities)

작품의 시작부터 화자는 테세우스를 기사도의 본보기로서 매우 긍정적이며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테세우스는 기사도의 기본적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정의감, 약자에 대한 배려, 물리적인 힘 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981-90).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신념은 그를 묘사하기 위하여 화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에서 엿볼 수 있다. “훌륭한,” “뛰어난,” “가치 있는” 등의 수식어를 통하여 화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로서 테세우스의 역량과 품성에 의문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갈등 해결’이라는 간단한 구조를 반복적이며 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수용하도록 만들듯이, 작품의 시작부터 테세우스를 완벽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는 그가 기사도 정신에 위배됨이 없는 완벽한 인물임을 독자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본적 구조의 반복 및 교차적인 사용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합하는 원형적 구조와 더불어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묘사는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분명 절제된 구조와 테세우스의 모습을 통하여 기사가 추구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기사도의 기치(旗幟)하에 질서와 안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이 언급했듯이 실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의 신념이 현실 속에서 무모할뿐더러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기사의 이야기」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incongruities)를 통하여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내용 면에서 볼 때, 테세우스에 대한 화자의 이상적인 묘사와 사뭇 어울리지 않

5) William Frost, “An Interpretation of Chaucer’s *Knight’s Tale*,” *RES* 25 (1949): 290-304; Charles Muscatine, “Form, Texture and Meaning in Chaucer’s *Knight’s Tale*,” *PMLA* 65 (1950): 911-25; John Halverson, “Aspects of Order in the *Knight’s Tale*,” *Speculum* 57 (1960): 606-21; Judith Schere Herz, “Chaucer’s Elegiac Knight,” *Criticism* 6 (1964): 212-24; Paul F. Baum, *Chaucer: A Critical Appreciation* (Durham: Duke UP, 1958), 84-104; Richard Neuse, “The Knight: the First Mover,”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31 (1962): 299-315.

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작품에서 종종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테세우스는 화자의 표현대로 이상적인 인물로 보이나 실제 작품 여기저기에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과 이로 인하여 비롯된 결과는 그의 신념과 이상에 대하여 독자가 회의를 품기에 충분하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서 팔라몬과 알시테의 사랑으로 비롯된 사적인 대립과 갈등을 테세우스가 해결하려는 과정과 이로 인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아미존과 테베에서 혼란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테세우스가 두 연인의 갈등을 기사도적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사도적 규범을 상징하는 원형경기장으로 이들을 이끈다. 숲은 사적인 장소로 은밀함과 어둠을 암시하고 있다면, 테세우스가 두 연인의 대결 장소로 선택한 원형경기장은 그 자체의 구조가 말해주듯이 질서와 규칙이 지배하는 공적인 장소인 셈이다. 그러나 기사도의 규범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테세우스의 이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테세우스가 강조하는 규칙은 상대를 살상할 가능성이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537-60).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질서와 안정은 무법의 폭력과 잔인한 피 흘림으로 무산되고 만다(2607-11). 이는 테세우스가 신봉해온 가치관과 믿음이 모든 갈등을 제어하고 질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테베와 아미존의 전투는 말 그대로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이루어진 반면, 사랑이라는 인간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싸움까지도 기사도의 명분으로 해결하려는 테세우스의 자세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현실 속에서 테세우스의 이상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연인들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원형 경기장 그 자체에도 암시되어 있다. 원전과의 많은 차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원형 경기장 안의 마르스 신전에 대한 묘사이다(Pratt 618). 의견상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기 위한 초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실제 마르스(Mars) 신전의 내부묘사에는 원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전투에 승리하여 개선하는 테세우스의 모습과 그의 기원문에 나타나듯이 마르스는 다름 아닌 테세우스가 숭상하는 신

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계를 감안해볼 때, 마르신 신전에 대한 묘사는 테세우스가 신봉하는 기사도가 폭력과 잔혹성 혹은 재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 초서의 또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아울러 마르스 신전 내부에 대한 일부 묘사는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실은 불공평하며 자의적으로 운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사냥꾼은 거친 곰들에게 짓밟히고;  
 수탉지는 요람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삼켜버리고;  
 요리사는 자신의 긴 국자로 인하여 데기도 하며,  
 마르스 신이 가져다주는 불행들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잊을 수 없을 것이오.  
 (이외에도) 짐꾼은 자신의 짐마차에 치어;  
 바퀴아래 짐꾼은 깔리기도 하죠.

The hunte strangled with the wilde beres;  
 The sowe freten the child right in the cradel;  
 The cook yscalded, for al his longe ladel.  
 Noght was foryeten by the infortune of Marte  
 The cartere overryden with his carte;  
 Under the wheel ful lowe he lay adoun. (2018-23)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든 일이 노력과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외의 인용문에 암시되어 있다. 솔터(Elizabeth Salter)의 주장대로 신의 이유 없는 잔혹성 앞에 인간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내용과 함께 이는 인간만사가 테세우스의 뜻대로 기사도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시사한다(32). 테세우스의 이상적 세계관에 대한 초서의 이와 같은 회의적인 태도는 새턴에 대한 기술에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2453-69). 이 부분에서 초서는 운명의 여신(Fortune)이 보여주는 이유 없는 잔혹함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만물에 작용하는 신의 정의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지 초서는 말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적 영역은 물론 인간의 사적인 감정마저도 자신의 삶과 영역 안에서 안정적이며 조화롭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테세우스의 이상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테세우스의 이상과 신념대로 세상 모든 일이 질서와 조화 속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초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완벽한 균형과 절제를 갖춘 작품의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의 부조화 이외에 「기사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우스꽝스러운 분위기 또한 화자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총 서시」(*The General Prologue*)와 『캔터베리 이야기』의 곳곳에 묘사되어 있는 기사의 모습과 역할 그리고 「기사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관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다소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일찍이 누스(Richard Neuse)는 「기사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상황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것들이 화자가 의도한 바인지 아니면 화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299-315).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일부 내용의 경우, 단순히 화자의 무의식 혹은 의식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작가인 초서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다이애나(Diana)의 신전에서 에밀리가 불길한 징조를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독자들은 주위 분위기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에밀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  
 재단에선 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불 중 하나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살아났고  
 곧이어 다른 한 불이 불길을 잃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이 꺼질 때에는

물에 젖은 나뭇단이 탈 때와 같은 윙하는 소리가 울려났다.

The fires brenne upon the auter cleere,  
 Whil Emelye was thus in hir preyere.  
 But sodeynly she saugh a sighte *queynte*,  
 For right anon oon of the fyres *queynte*,  
 And quyked agayn, and after that anon  
 That oother fyr was *queynt* and al agon;  
 And as it *queynte* it made a whistelynge,  
 As doon these wete brondes in hir brennynge.... (2331-38)

위 인용문에서 네 차례에 걸쳐 *queynte*가 반복되고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순결의 여신을 숭상하는 다이애나의 신전이라는 점에서 *queynte*라는 단어는 배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순결을 지켜줄 것을 다이애나에게 기원하기 위하여 신전에 나타난 에밀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외설적인 단어는 매우 부적절하게 보인다. 결국 외설적인 단어의 반복으로 엄숙하고 고요한 신전의 분위기와 탄원자의 다소 긴장된 태도는 서서히 누그러들며, 독자 또한 기대치 않는 뜻밖의 단어로 인하여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이야기의 화자인 기사가 의식적으로 이 같은 외설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화자의 표현대로 “결코 타락하고 음탕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nevere yet no vileynye ne sayde)기사이기 때문에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같은 단어는 독자를 혼란스럽게까지 만든다. 특히, 작품에서 기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우아하며 언어 선택에 있어서 또한 그는 신중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어의 미묘한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고려해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앞서 인용된 문구의 바로 몇 행전(前)에서 화자는 똑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벌인다.

그들에게 사랑과 화평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과 욕망,  
 그리고 극도의 고통과 걱정이 가라앉게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향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As sende love and pees bitwixe hem two,  
 And fro me turne away hir hertes so  
 That al hire hoote love and hir desir,  
 And al hir bisy torment, and hir fir  
 Be *queynt*, or turned in another place. (2317-21)

위 인용문의 바로 전에서 또한 화자는 녀을 잃은 알시테를 묘사하면서도 *queynte*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못 연인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As doon these lovers in hir queynte geres...--1531).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넘어 음탕한 기분마저 연출한다. 성(性)과 관련된 이러한 단어 이외에 화자는 *harneys*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작품의 여기저기에서 화자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1613, 1628-32, 2140, 2496, 2896). *harneys*는 표면적으로는 ‘갑옷’(armor)을 의미하나, 그 이면에는 여성의 성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모두가 동일하게 여성의 성기와 관련한 말장난이 아닐지라도 화자의 언어사용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단어들은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에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만든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긍정풍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기사도적 로맨스에 이와 같은 말장난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화자의 의도를 후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단어에 내포된 성적 의미를 통하여 화자가 즐기는 이와 같은 말장난은 팔라몬과 알시테가 벌이는 사랑전쟁의 고귀함과 이상을 점강(漸降)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테세우스의 기사도적 이상과 연인들의 고귀한 사랑을 비웃으려는 듯 초서는 화자의 입을 빌려 이처럼 세속

적이며 심지어 음탕하기까지 한 단어들이 사용하고 있다. 포스터(Edward Forster)는 「기사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단어들은 화자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초서가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91). 시대착오적 가치관으로 세상만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기사와 테세우스의 이상주의에 대항하여 초서는 자신의 현실적 사고를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품에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부조화적 요소로 인하여 독자는 작품의 구조와 형식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화자와 거리를 둔 채 작가인 초서가 진정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말장난에서 비롯되는 부조화가 독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를 이끌어내듯이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또한 화자의 이상과 신념에 찬 물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 카펠레이너스(Andreas Capellanus)와 프랑스의 로맨스를 들먹거리며 팔라몬과 알시테가 벌이는 궁정풍의 사랑 논쟁이 재빠르게 단순한 말다툼으로 변질되는 장면(1092-1186)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언어의 부조화는 독자에게 웃음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나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무시무시한 상황과 함께 여기에서 두 사람은 치명적인 불행을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장면으로 팔라몬과 알시테가 숲 속에서 싸움을 벌이던 도중 테세우스에 의해 붙잡히는 부분들 수 있다. 팔라몬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나, 누가 먼저 처형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미적미적하는 하는 데, 이러한 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또 한편의 코미디를 제공한다. 기사도의 이상을 추구하고 사랑에 기꺼이 목숨을 건 이들 기사들 또한 현실적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세우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현실에 의해 테세우스의 이상이 작품 후반부의 한 장면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명목적으로는 불행을 줄이고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테세우스는 두 연인의 싸움에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제한을 두는 모습

이다. “유혈의 과국을 원하지 않으신 선하신 왕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God save swich a lord, that is so good,/He wilneth no destructions of blood!--2563-64]. 그러나 차후 벌어지는 두 연인 사이의 잔혹한 전투와 이로 인한 대학살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이 테세우스가 지향하는 이상과 부합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2608-11; 2634-35).

이러한 예들 외에도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 때문에 작품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는 우스꽝스러우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간과되기 쉽다. 앞 뒤 전후 스타일의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은 잔혹하거나 불행한 종말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를 두고 웃는 독자는 드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승리한 알시테가 말에서 떨어져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알시테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묘사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근엄해야 할 화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죽어 가는 알시테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앞 뒤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독자는 웃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알시테를 화장하기 위하여 나무들이 잘려진 후, 나무 안에 갇들어 있던 신들이 마치 놀란 다람쥐처럼 나무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독자들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비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쉽게 간과한다. 혹은 간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웃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조화로 인하여 독자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의도를 아무런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를 품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 나가, 언어 선택을 비롯하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 같은 묘사들은 화자가 지향해온 가치관과 의도를 훼손 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장난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외에 화자는 이야기 기법 상의 실수나 서투른 모습 또한 작품에서 보여주

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형식의 절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에 역행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화자의 능력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기사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테세우스의 시도가 무산되는 시점과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일례로 숲 속에서 벌어지는 팔레몬과 알시테의 대립을 테세우스가 중재하는 시점부터 화자는 작품의 전반부에서처럼 이야기의 흐름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균형적이며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러 곳에서 화자는 아이러니 효과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유발시킨다. 화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이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 안에 수시로 개입하는 데, 실제 화자의 이러한 빈번한 개입은 이야기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뿐 더러 오히려 화자가 의도하는 바에 독자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든다. 특히, 팔레몬과 알시테가 숲 속에서 대결하는 장면에서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화자는 잠시 자신의 의도를 망각한 채 실수를 범한다.

그들이 흘린 피에 발목이 잠길 때까지 싸웠다.  
 이쯤에서 그들이 계속 싸우도록 나두고  
 테세우스에게로 옮겨가 보기로 하자.

Up to the ancle foghte they in hir blood.  
 And in this wise I lete hem fightyng dwelle,  
 And forth I wole of Theseus yow dwelle. (1660-62)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 화자가 두 연적의 치열한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필요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혼란한 상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채, 마치 그 상태에서 단순히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화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싸우도록 내버려둘까 합니다”라고 말한다.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것 같은 화자의 이

러한 태도를 감안할 때, 기사도의 가치 아래 혼란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 그가 의도하는 바인지 독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야기 기법 상 화자가 범하는 이러한 부조화는 작품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더욱 더 심화된다. 그 이유는 화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대변하는 테세우스의 시도가 현실 속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시점이 바로 작품의 후반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자 자신이 굳게 믿었던 기사도적 가치관과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부분이 바로 알시테의 장례식 장면인데, 여기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이야기 기법 상의 실수와 부자연스러움은 지금까지 화자가 보여준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알시테의 화장을 위해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묘사하기 위하여 화자는 “오큐파치오”(Occupatio)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간결하게 전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 또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화자는 17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Ne”(No)를 사용하는데 이는 화자가 이미 내레이터로서 자신의 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sup>6)</sup> 뿐만 아니라 알시테가 죽은 후 화자의 어조(tone)는 그전까지의 근엄하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화자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2759-60; 2809-15). 어느 장면에서보다 더욱 더 엄숙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화자는 매우 피상적이며 경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시테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말투는 심지어 다소 투명스럽게까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곤 했던 화자가 알시테의 영혼에 대하여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고사하고 영혼의 행방조차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화자의 신념 내지 자신감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화자는 원전이 보여주는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암시를 거부할뿐더러 지금까지 자신이 지향해온 전

---

6) 필자는 이미 화자인 기사가 범하는 스타일의 문제에 관하여 자세히 논한 적이 있다; “「기사의 이야기」 다시 읽기: 기사와 그의 이야기는 초서의 가치관과 목소리의 반영인가?”(27-37), 『담론의 질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년.

지적인 관점까지 포기해가며 알시테의 영혼에 대하여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보카치오가 보여주는 낙관론을 거부하는 것이며, 아울러 알시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혼란과 절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허츠(Judith Herz)의 주장대로 이는 신의 섭리와 정의, 그리고 신의 공평성에 대한 화자의 회의와 절망을 암시하며(212-24), 아울러 화자 자신이 굳게 믿었던 테세우스의 기사도적 관점과 가치관에 대한 절망의 결과인 셈이다. 기사도를 통하여 무질서한 인간세계에 질서와 안정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테세우스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알시테의 죽음은 반증해준다. 인간의 이성과 지력으로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인간의 사적인 감정까지도 제어하여 질서를 부여하겠다는 테세우스의 이상이 현실 앞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알시테의 죽음과 관련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암시하고 있다.

#### IV. 초서의 의도

머스카틴(Charles Muscatine), 보움(Paul Baum), 누스(Richard Neuse)를 비롯한 일부 비평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사가 범하는 기법 상의 실수 혹은 내용과 형식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단순히 ‘불필요하다거나,’ ‘웃음을 자아낸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으로 이들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완전하게 보이는 이야기의 구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화자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나온 실수에 불과한 것인가? 의문을 품어본다. 아니면 『총 서시』나 『캔터베리 이야기』의 여기저기에 언급된 기사의 모습과 행동을 두고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에 마땅히 이러한 실수나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것일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우연의 실수를 날카로운 비평가들이

찾아낸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야기의 화자인 기사는 『캔터베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꾼들 가운데 신분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중세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세 집단, 즉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민 집단 중에도 핵심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꾼들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초서마저도 기본적으로 기사가 하는 이야기만은 『캔터베리 이야기』의 맨 먼저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기사 또한 이야기 게임의 조정자이며 심판자인 여관주인의 지시를 누구보다 잘 따르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기사 스스로 여관주인이 설정한 이야기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며 자신이 첫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게임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 왜 주저하셨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짧은 제비를 뽑은 것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여관주인이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제시한 ‘교훈’과 ‘즐거움’을 망각했을 리 만무하다. 다시 말해서, 예외와 규칙을 잘 지킬뿐더러 믿을 만한 이야기꾼인 기사가 좋은 이야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자신의 이야기에서 빼놓았을 리 없다.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귀족계층으로 남보다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기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한 채 이야기를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볼 때, 「기사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나 기법 상의 실수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와 부조화는 근엄하고 엄숙한 내용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웃음을 연출하는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이야기의 조건인 ‘교훈’과 ‘즐거움’을 동시에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꾼으로서 화자의 배려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소 남을 웃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기사이기에 다소 어색한 웃음이긴 하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나마 나름대로 여관주인이 제시하는 이야기 조건을 충족시키려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나마 여관주인이 제시한 이야기의 규칙을 따름으로서 기사는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이야기꾼들의 모범이 되고자 했을 수도 있다.

‘교훈’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기사의 어설픈 의도 이외에 절제된 구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과 스타일의 부조화를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초서의 다른 숨겨진 의도를 가정해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어느 정도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를 본 논문에서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 분명 화자는 실수나 부조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화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또 다른 화자인 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초서가 의도한 바에 따라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와 기법 상의 부자연스러움이 비롯되었다는 가정 아래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초서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중세후기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 기사의 타락과 기사도의 몰락을 암시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폭력과 혼란을 「기사의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초서의 의도가 될 수도 있다. 초서가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사회, 정치 비평가인 가우어(John Gower)나 랭랜드(William Langland)와는 다르게 초서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울러 초서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 또한 초서가 소신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분명히 저해했을 것이다. 단지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가 초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초서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상에 집착하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당시 기사와 기사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초서의 작품에 등장하는 기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기사는 거의 없으며, 다들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퇴물들에 불과하다. 「기사의 이야기」의 화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기사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허츠를 중심으로 일부 비평가들은 화자로 등장하는 기사 또한 오직 이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21-24).

아니면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인간적인 초서의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지양하며

가능한 상반된 두 개의 가치관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했던 초서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까? 화자와는 서로 다른 초서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방법에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본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질문에 긍정히는 주장을 내내 펼쳐왔다. 사실 「기사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캔터베리 이야기』 속 대부분의 작품에서 독자는 작가로서 초서가 보여주는 온화함과 여유뿐만 아니라 기법 상의 민감한 필치를 느낄 수 있다. 초서는 아무리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을 앞에 두고 그와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 가능하면 우회적으로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을 독자에게 제시하곤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서는 ‘비꼬기를 좋아하는 사람’(ironist) 혹은 풍자가(satirist)로 불리기도 하나 그에 글에는 항상 따뜻한 인간미가 배여있다. 그것이 그가 처한 당시 사회적,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앞서 언급한 그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초서의 대부분 작품들 가운데 하나의 가치관과 관점이 주입되는 독단적이며 ‘단선적인’(monologic)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서의 작품에서 그의 의도를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하나의 이야기에 다양한 의미와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바로 독자에 몫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기사의 이야기」 또한 대다수의 비평가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독자 각각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모두가 허공에 맴도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지적인 능력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사의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초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보다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The Miller's Tale*)를 다 들어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자, 내용, 스타일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전자와 대척점(對蹠點)에 있는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의 분석이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제어: 제프리 초서, 「기사의 이야기」, 내러티브 기법, 내러티브 구조, 부조화

### Works Cited

- 이동일. 이동춘 역. 『켄터베리 이야기 I』. 서울: 한울, 2001.
- 이동춘. “「기사의 이야기」 다시 읽기: 기사와 그의 이야기는 초서의 가치관과 목소리의 반영인가?” 『담론의 질서』. 서울: 한울, 1998. 27-37.
- Barnes, Geraldine. “Chaucer’s Double Telling of the *Knight’s Tale*.” *Words and Wordsmiths: a Volume for H. L. Rogers*. Ed. Geraldine Barnes et al. Sydney: U of Sydney, 1989.
- Baum, Paul. *Chaucer: A Critical Appreciation*. Durham: Duke UP, 1958.
-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2nd ed. Bollingen Series 17. Princeton: Princeton UP, 1968.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Gen.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Fifield, Merle. “The *Knight’s Tale*: Incident, Idea, Incorporation.” *Chaucer Review* 3 (1968): 95-106
- Foster, Edward. “Humor in the *Knight’s Tale*.” *Chaucer Review* 3 (1969): 88-94.
- Halverson, John. “Aspects of Order in the *Knight’s Tale*.” *Speculum* 57 (1960): 606-21.
- Hendrick, William. “The structural Study of Narration: Sample Analyses.” *Poetics* 3 (1972): 100-105
- Herz, Judith. “Chaucer’s Elegiac Knight.” *Criticism* 6 (1964): 212-24.
- Herzman, Ronald B. “The Paradox of Form: The *Knight’s Tale* and Chaucerian

- Aesthetics.”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10 (1974): 339-52.
- Kean, Patricia M. *Chaucer and the Making of English Poetry: Vol. II, The Art of Narrative*. London: Routledge and K. Paul, 1972.
-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Myth: A Symposium*. Ed. Thomas A Sebeok.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P, 1965.
- Luxon, Thomas H. “‘Sentence’ and ‘Solaas’: Proverbs and Consolation in *The Knight’s Tale*.” *Chaucer Review* 22 (1987): 94-109.
- Muscattine, Charles.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A Study in Style and Meaning*. California: Berkeley UP, 1957.
- \_\_\_\_\_. “Form, Texture and Meaning in Chaucer’s *Knight’s Tale*.” *PMLA* 65 (1950): 911-25
- Neuse, Richard. “The Knight: The First Mover in Chaucer’s Human Comedy.”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31 (1961-2): 299-315.
- Olson, Paul A. “Chaucer’s Epic Statement and the Political Milieu of the Late Fourteenth Century.” *Mediaevalia* 5 (1979): 61-87.
- Penninger, Elaine F. “Chaucer’s *Knight’s Tale* and the Theme of Appearance and Reality in *The Canterbury Tale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63 (1964): 398-405.
- Pratt, Robert A. “Chaucer’s Use of the *Teseida*.” *PMLA* 62 (1947): 598-621.
- Rowe, Elizabeth Ashman. “Structure and Pattern in Chaucer’s *Knight’s Tale*.” *Florilegium* 8 (1986): 169-186
- Salter, Elizabeth. *Chaucer: The Knight’s Tale and the Clerk’s Tale*. London: Edward Arnold, 1962.
- Schweitzer, Edward C. “Fate and Freedom in *The Knight’s Tale*.” *SAC* 3 (1981):
- Stroud, Theodore A. “Chaucer’s Structural Balancing of Troilus and ‘Knight’s Tale.’” *Annuaire Mediaevale* 21 (1981): 31-45
- Turner, Frederick. “A Structuralist Analysis of the *Knight’s Tale*.” *Chaucer*

- Review 8* (1974): 279-296.
- Vesey, David. *Staius and the Thebaid*. Cambridge: Cambridge UP, 1973.
- Wilson, H. S. "The Knight's Tale and The Teseida Agai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18 (1948-9): 131-146.
- Wittig, Susan. *Stylistic and Narrative Structures in the Middle English Romances*. Austin and London: U of Texas P, 1978.
- Woods, William F. "Up and Down, To and Fro: Spatial Relationship in the Knight's Tale." *Rebels and Rivals: The Contestive Spirit in the Canterbury Tales*. Ed. Susanna Greer Fein et al.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P, 1991.

## *The Knight's Tale:* Forms, Incongruities, and Chaucer's intention

Abstract

Dongchoon Lee

The *Knight's Tale* has often been ci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ventional or formal style. This formalism is characterized not only by the use of rhetoric and a high style of writing but also by the use of a classical setting and the patterns and correspondences found in the Latin works. In addition, the idea of correspondence between gods and men is properly developed in the tale, and this yields an ordered, symmetrical set of characters. Considering the ordering of forms and patterns along with the prominent presentation in Theseus' sermon of the order of Nature, it is not exaggerating to assume that the *Knight's Tale* is in some way about order.

However, when more closely examined, the *Knight's Tale* seems to be more about disorder than order. It is through his careful manipulation of artistic patterns or forms that the narrator attempts to show the vision of order and harmony in the ideal world of chivalry. However, the poet-Chaucer tries to strip the artificiality of the Knight's unearthly idealism and to reveal the impossibility of keeping order in real life. By adding his realistic perspective against the Knight's idealism, Chaucer in the tale leads us to doubt the Knight's optimistic belief in the orderly working of universe. Chaucer places the incongruent elements within the *Knight's Tale*, which, disturbing the narrative flow, lead the reader to be suspicious of both the narrator and his narrative. Furthermore, it is through the narrative techniques of variety that Chaucer is at great pains to separate the Knight's voice from his own. For example, not only in content, but

in stylistics, do the loopholes in the *Knight's Tale* reflect Theseus' or the Knight's failure in controlling more complex, harsher reality with their outmoded vision of the world grounded on the aristocratic chivalry, and their misconception of the working of divine justice. In addition, Chaucer's voice in the Knight's narrative is satirizing the limitations of the Knight's chivalric mentality that a social order grounded on violence can prevail in reality.

Key Words

Geoffrey Chaucer, *Knight's Tale*, Narrative Techniques, Narrative Structure, Incongruities